전공자도 난해한 킬러문항 22개 공개

교육부, 수능·올해 6월 모평 기준 고차원적 접근·과도한 추론 필요 "올 수능, 출제단계부터 배제할 것"

교육부가 26일 사교육 경감 대책을 발표하면서 최근 3년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과 올해 6월 한국교육과정평가원 모의평가에서 출제된 문항 가운데 총 22개의 '킬러 문항'(초고난도 문항)을 가려냈다. 교육부는 고차원적인 접근 방식, 추상적 개념 사용, 과도한 추론 필요 등을 이유로 이들 킬러 문항을 골라냈다고 밝혔다. 올해 수능에서는 이러한 종류의 킬러 문항을 출제 단계에서부터 배제하겠다고 강조했다.

킬러 문항 예시를 공개한 것은 올해 수능을 약 5개월 앞두고 수험생들이 혼란을 겪는 것을 막겠다는 취지다. 그러나 킬러 문항 선정 기준이 여전히 모호해 과연 킬러 문항으로 볼 수 있을지에 대한 평가가 서로 다를 수 있고, 또한 킬러 문항 없이 어떻게 변별력을 확보할지 교육부가 명확히 제시하지 못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교육부가 공개한 국·영·수 킬러 문항 사례를 보면 2021학년도 수능에서 1개, 2022학년도 수능 7개, 2023학년도 수능 7개, 2024학년도 6월 모의평가 7개 등 총 22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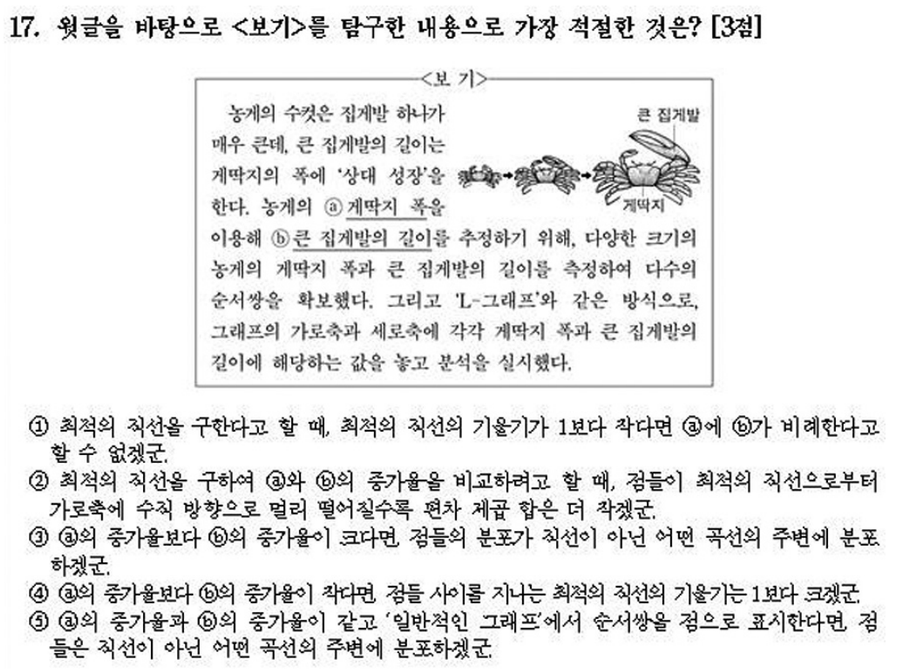
영역별로는 국어 7개, 수학 9개, 영어 6개다.

교육부는 킬러 문항을 공교육 과정에서 다루지 않는 내용으로 사교육에서 문제 풀이 기술을 익히고 반복적으로 훈련한 학생들에게 유리한 문항으로 정의하고, 교육부·현장 교원 중심으로 킬러 문항 점검팀을 구성해 킬러 문항을 골라냈다고 설명했다.

우선 수학에서는 최근 6월 모의평가에 수학 공통과목의 21번과 22번과 선택과목 '미적분'에서 마지막 문항인 30번이 킬러 문항으로 지목됐다.

22번의 경우 다항함수의 도함수, 함수의 극대·극소, 함수의 그래프 등 세 가지 이상의 수학적 개념이 결합해 공교육 학습만 받은 학생의 접근이 쉽지 않다는 이유를 들었다.

2023학년도 수능에서는 역시 공통과목 마지막 주관식인 22번과 선택과목 '확률과 통계'의 30번, '미적분' 30번이 킬러 문항으로 지목됐다.



17.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를 탐구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보 기>

농게의 수컷은 집게발 하나가 매우 큰데, 큰 집게발의 길이는 게딱지의 폭에 '상대 성장'을 한다. 농게의 ⓐ게딱지 폭을 이용해 ⓑ큰 집게발의 길이를 추정하기 위해, 다양한 크기의 농게의 게딱지 폭과 큰 집게발의 길이를 측정하여 다수의 순서쌍을 확보했다. 그리고 'L-그래프'와 같은 방식으로, 그래프의 가로축과 세로축에 각각 게딱지 폭과 큰 집게발의 길이에 해당하는 값을 놓고 분석을 실시했다.

① 최적의 직선을 구한다고 할 때, 최적의 직선의 기울기가 1보다 작다면 ⓐ에 ⓑ가 비례한다고 할 수 없겠군.
② 최적의 직선을 구하여 ⓐ와 ⓑ의 증가율을 비교하려고 할 때, 점들이 최적의 직선으로부터 가로축에 수직 방향으로 멀리 떨어질수록 편차 제곱 합은 더 작겠군.
③ ⓐ의 증가율보다 ⓑ의 증가율이 크다면, 점들의 분포가 직선이 아닌 어떤 곡선의 주변에 분포하겠군.
④ ⓐ의 증가율보다 ⓑ의 증가율이 작다면, 점들 사이를 지나는 최적의 직선의 기울기는 1보다 크겠군.
⑤ ⓐ의 증가율과 ⓑ의 증가율이 같고 '일반적인 그래프'에서 순서쌍을 점으로 표시한다면, 점들은 직선이 아닌 어떤 곡선의 주변에 분포하겠군.

교육부가 2023학년도 수능 국어에서 선정한 킬러 문항

22번의 경우 공통과목인데도 선택과목으로 '미적분'을 응시한 수험생은 '변곡점'의 개념을 활용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 다른 학생보다 유리할 수 있다는 점이 문제가 됐다.

국어에서는 2024학년도 6월 모의평가에서 '몸과 의식의 관계에 대한 철학적 탐구'를 다룬 지문을 읽고 추론하는 14번, 조지훈의 '맹세'와 오규원의 '봄'이라는 시에 달린 3점짜리 질문인 33번이 전문 용어 사용, 높은 수준의 추론 등을 이유로 킬러 문항으로 선정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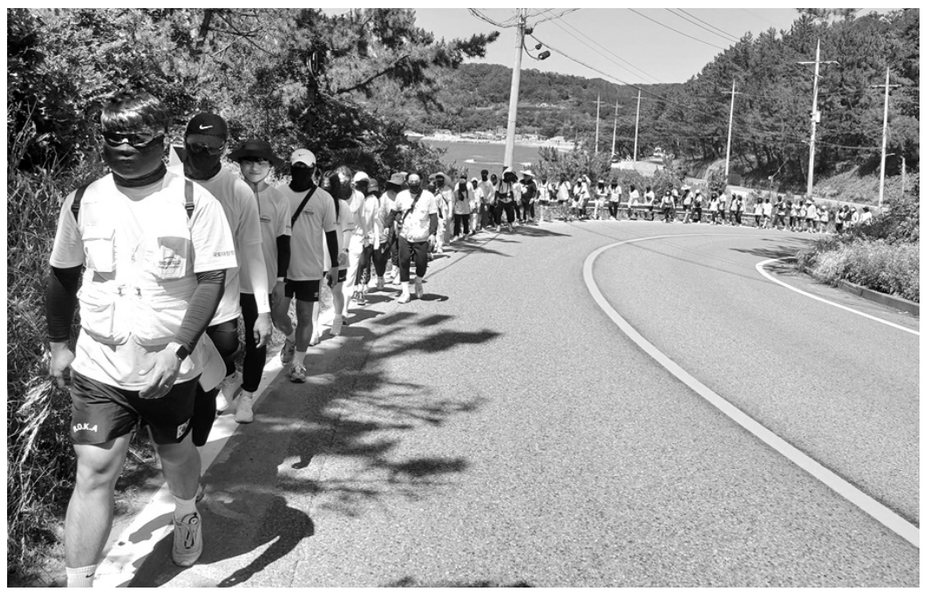
2023학년도 수능에서는 '클라이버의 기초 대사량 연구'를 다룬 과학 지문에 달린 15번과, 클라이버의 법칙을 이용해 농게 집게발 길이를 추정하는 17번 문제가 과도한 추론을 요구한다는 이유로 킬러 문항에 선정됐다.

2022학년도 수능 국어에서는 '달러화'의 기축 통화 역할과 '브레턴우즈 체제'를 다룬 경제 분야 지문을 읽고 푸는 13번이 높은 경제 영역의 배경지식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킬러 문항에 선정됐다.

영어에서는 2024학년도 6월 모의평가에서 33번, 34번, 2023학년도 수능에선 34번과 37번, 2022학년도 수능에선 21번과 38번이 킬러 문항으로 선정됐다. 교육부는 선정 이유로 공교육에서 다루는 수준보다 어려운 문장 구조로 구성돼 있다는 점 등을 들었다.

킬러 문항 배제 방침 자체를 놓고서는 대체로 교육계는 찬성하는 분위기다. 현 수능 출제 구조상 최상위급 변별을 위해 어느 정도 출제가 불가피하다는 의견도 있지만 대학 전공자가 풀기에도 난해하다는 지적은 일리가 있기 때문이다. 교원단체들도 킬러 문항 배제 방침이 나온 직후 일제히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그러나 킬러 문항 배제 방침과는 별도로 교육부의 킬러 문항 선정 기준이 모호해 수험생들의 혼란은 여전할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연합뉴스



광주대 국토역사유적탐방단, 울릉도·독도 대장정

6박7일 일정 재학생·교직원 64명 참여, 28일 불국사 탐방으로 마무리

광주대학교(총장 김동진) '2023 국토역사유적탐방단'이 6박 7일간의 울릉도·독도 탐방대장정에 올랐다. 〈사진〉

재학생(56명)과 교직원(8명) 64명으로 구성된 광주대 울릉도·독도 탐방단은 지난 22일 오후 포항 호미곶에서 출정식을 갖고, 이튿날 호미곶 해맞이 광장에서 일출 관람을 시작으로 본격 일정에 돌입했다.

탐방단은 23일 해파랑길 15코스(17km), 24일 포스코 등을 경유하는 해파랑길 16코스(18km) 장거리 도보 행진을 벌이며 호미곶 일원 답사와 탐방 활동을 마쳤다.

이어 25일에는 울릉도로 이동해 26일까지 이틀 동안 울릉도·독도에 산재한 비경을 둘러보고, 독도가 명백한 한국 영토임을 천명한 영토 표석 관람과 독도의용수비대와의 만남을 통해 대한민국의 독도 수호 노력 등을 실감했다.

탐방단은 이후 27일에는 경상북도 경주로 장소를 옮겨 월지 및 첨성대 야경을 관람한 뒤 28일 오전 불국사 탐방을 끝으로 6박 7일 간의 대장정을 마무리한다.

조주형(문예창작과)씨는 "광주가 '민주화의 성지'라면, 독도는 유구한 역사적 지리적 군사적 성지인데 꿈에 그리던 독도 땅을 밟을 수 있게 돼 뭉클하다"며 "우리 국토의 아름다움을 확인하고, 주권 수호에 대한 가슴 뛰는 인생경험을 할 수 있는 멋진 방학으로 두고두고 기억될 것 같다"고 말했다. /윤영기 기자 penfoot@kwangju.co.kr

동신대, '2주기 평생교육체제' 대학 선정

2년 동안 연 10억 사업비 지원…지역 평생교육센터 구축

동신대학교(총장 이주희)가 최근 교육부와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의 '2주기 대학의 평생교육체제 지원 사업(라이프 2.0)' 참여 대학으로 선정됐다.

라이프(LiFE) 2.0은 성인학습자 친화적 대학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노력해 온 1주기 라이프(2019~2022년) 사업의 성과를 바탕으로 성인학습자의 대학 진입을 확대하고 대학 내 평생교육체제 고도화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동신대와 목포대가 전남도와 컨소시엄을 구성해 광역지자체연계형(3유형)에 사업을 신청, 참여 대학으로 최종 선정됐다.

동신대는 올해 6월부터 2년 동안 연 평균 10억원의 사업비를 지원받아 지역 평생교육센터를 구축하고 전남지역 특화 산업인 ▲에너지·조선 ▲사회서비스 ▲문화관광 분야의 재직자, 전직자를 대상으로 평생 교육을 활성화할 계획이다.

지역 주민과 산업 수요를 반영해 성인학습자의 직무 전문성 확보를 위한 하이브리드형 융합교육과정 모형을 개발?운영하고 성인 학습지원센터 설치, 학사제도 유연화 등을 추진한다.

성인학습자를 위한 전담 학과도 설치·운영한다. 글로컬융합대학 평생교육학부의 에너지리사이클링학과, 헬스케어복지학과, K-남도문화학과, 한국어교원학과를 신설하고 2024학년부터 성인학습자 입학 전형을 통해 신입생 100명을 선발한다.

동신대는 이와 같은 지역?대학?산업체 상생을 통해 지역평생교육 허브 구축, 지역정주형 인구 증대와 취?창업 촉진 등의 성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라이프2.0 사업은 오는 2025년 5월까지 진행되며 같은 해 6월부터는 지역혁신중심대학지원체계(RISE) 체계에 통합돼 운영된다.

이주희 동신대 총장은 "전남도, 목포대와의 협업을 통해 지역 내 평생교육 거점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겠다"고 말했다.

/윤영기 기자 penfoot@kwangju.co.kr

광주여대 작업치료학과, 수완건강생활지원센터와 연계

경도인지장애 노인 대상 디지털 작업치료·수공예 활동

광주여자대학교(총장 이선재) 작업치료학과는 최근 산학협력기관인 수완건강생활지원센터와 연계하여 지역사회에 거주하는 경도인지장애 노인들을 대상으로 디지털 작업치료와 수공예를 통한 창의적 작업활동을 진행했다고 26일 밝혔다. 〈사진〉

이번 프로그램은 이혜선 교수 외 재학생 11명이 교내 서비스러닝 활동으로 지원 받아 운영됐으며, 인지·지각 기능의 향상을 위한 다양한 디지털 치료활동과 화분만들기, 다육식물 키우기 등의 수공예 활동으로 구성됐다.

작업치료학과 이혜선 교수는 "작업치료 분야에서는 VR, 태블렛 PC 등 소프트웨어를 기반으로 한 다양한 디지털 치료 서비스를 제공한다"며 "최근 언택트 시대에 들어서면서 의료기관뿐만 아니라 발달센터, 보건소 등 다양한 기관에서도 디지털 치료기기 사용의 일반화시키기 위한 노력이 진행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활동을 통해 예비 작업치료사로서의 창의적 작업활동 뿐만 아니라, 디지털 시대 흐름에 맞는 전문가 양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윤영기 기자 penfoot@kwangju.co.kr